

#위드 코로나 #원자재값·해운 운임 상승... 하반기 '흐림'

가전업계 기상도

위드 코로나 전환에 소비 정상화 TV·가전 등 수요 숨고르기 예상 '공급부족' 원자재값 10%대 상승 해운 운임비용도 큰폭으로 올라

하반기 가전업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시장이 점차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며 펜트업 특수를 누린 가전 시장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여기에 원자재값 및 해운 운임 상승 등 대외 상황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증권가, 하반기 성장세 둔화 전망

23일 증권가는 코로나19 특수로 크게 증가했던 TV, 가전 등의 수요가 올 하반기부터 빠르게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백신 접종자 수가 늘면서 각국의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TV, 가전 수요를 이끌었던 재화 소비 풀림은 완화되고, 서비스 소비 비중이 커지는 '소비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전 시장은 북미 지역 블랙프라이데이



최근 원자재값·해운 운임의 가파른 상승은 가전업계 대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뉴시스

이 등이 있는 연말로 갈수록 성수기를 맞이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지난 1년간의 가전 수요 증가세가 컸던 만큼 올 하반기부터 향후 1년간 수요 둔화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북미와 유럽의 TV 수요는 2019년 하반기 대비 22% 늘어난 것과 달리 올해 백신 보급 확대로 내구재 구매가 줄고 오래된 TV에 대한 교체 수요 영향이 감소하면서 하반기부터 TV 판

매 둔화가 예상된다. 특히 북미 -19%, 일본 -9%, 유럽 -8% 등 TV 선진 시장 감소폭이 커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펜트업 수요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활 가전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의 늘어난 서비스 소비 지출로 가전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 영향으로 가전업계 매출이 다소 늘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업계 판촉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영업이익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재값·해운 운임 상승 등 대외 리스크 많아

최근 원자재값 및 해운 운임의 상승은 하반기 가전 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달 발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TV 및 생활가전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은 공급 부족 등으로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LG전자 반기보고서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철·레진·구리 평균 가격은 각각 14%·16.2%·7.6% 상승했다고 전했다. LCD TV 패널 평균 가격도 지난해 대비 올 상반기 38.1% 상승했다.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TV·모니터용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은 전년 대비 약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 운임 상승은 더 가파르다.

글로벌 해운 운임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해 9월 18일 기준 1409.57에서 이달 17일 기준 4622.51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985.44→3156.83), 영국의 하우로빈슨 컨테이너운임지수(764→4722), 발틱운임지수(1296→4275) 모두 큰 폭의 증가

세를 보였다.

가전 업계는 해운 업체와 선제적으로 협의를 통해 운임 상승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3분기 실적 영향은 크지 않을 듯

당장 올 3분기 가전업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전자의 올 3분기 매출은 18조522억원, 영업이익은 1조1426억원으로 추정된다. 증권업계는 LG전자가 원자재값 및 운임 부담에도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순항하고 있어 3분기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 보고서는 LG전자가 OLED TV의 양호한 판매를 바탕으로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LG전자의 OLED TV 출하량은 올해 1, 2분기 각각 지난해 대비 116.2%, 198.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3분기에도 89.5% 증가해 LCD TV 출하량 감소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증권업계는 삼성전자의 경우 올 3분기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16조원대를 추정하면서도 TV 판매 부진과 생활가전 원자재값 및 물류비 부담 등으로 실적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창대 기자 cdi1@metroseoul.co.kr

현대차 '아이오닉 7', SK이노 배터리 단다

SK이노, 현대차 배터리 물량 수주 파트너십 강화... 연내 콘셉트 공개

현대자동차와 SK이노베이션이 오는 2024년 선보일 순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 7'의 개발에 힘을 합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현대차가 최근 발주한 아이오닉 7 배터리 물량을 수주했다. 아이오닉 7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이 적용되는 첫 대형 SUV 차량으로 2024년 선보일 예정이다.

아이오닉 7은 '아이오닉 5'와 더불어 현대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되는 첫 대형 SUV로 연내 콘셉트가 공개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달 초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에서 탄소중립 프로젝트와 더불어 아이오닉 7의 실루엣을 최초 공개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브랜드 론칭 당시 올해 아이오닉 5 출시를 기점으로 2022년에 콘셉트카 '프로페시' 기반의 중형 세단 '아이오닉 6', 2024년 아이오닉 7을 차례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아이오닉 7 배터리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합작사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 그러나 최근 별도 발주가 이뤄지면 SK이노베이션이 단독으로 파낸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은 현대차 E-GMP 첫 모델인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에 이어 아이오닉 7까지 수주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배터리 계약으로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 간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6일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1'에서 아이오닉 7 실루엣을 첫 공개한 데 이어 연내 아이오닉 7 콘셉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U+ 평촌IDC, 산업안전·안정성 인정

국내 IDC 중 최초 ISO 45001 획득

LG유플러스의 평촌메가센터가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중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산업안전과서비스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LG유플러스는 평촌메가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45001은 2018년 새로 제정된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이다. 산업별 다양한 유형의 위험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한 기업시스템을 평가하는 제도다.

LG유플러스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과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한 사업장 구현을 위해 3월부터 인증 추진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인증획득을 위해 사내 안전관리 가이드를 재점검하고, 안전 관련 수행업무를 심사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LG유플러스는 ESG 활동의 한 분야인 산업안전 강화 활동에 속도를 붙이고, 평촌메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외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 안정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준혁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KT '5G 기술', 7년 연속 월드어워드 수상

5G 월드어워드 2021 2개 부문 캐거 서비스 혁신, 최고 5G 코어망 기술상

KT의 5G 기술이 7년 연속으로 5G 월드어워드를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KT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5G 월드어워드 2021 시상식에서 '통신서비스 혁신상', '최고 5G 코어망 기술상'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ICT 연구기관 인포마텔레콤 앤미디어가 주관하는 '5G 월드어워드'는 ICT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2010년 시작해 LTE부터 5G까지 통신 기술 및 서비스, 인공지능(AI),



KT 네트워크연구기술본부장 서영수(왼쪽) 상무와 김경엽(가운데) 액세스망기술1팀장, 오홍석 제어망기술팀장이 5G 월드어워드 2021 '최고 5G 코어망 기술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클라우드 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성과와 혁신을 이뤄낸 기업과 서비스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올해 KT는 '통신서비스 혁신상' 및 '최고 5G 코어망 기술상' 2개 부문에 출

품해 모두 수상했다.

이로써 KT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5G 월드어워드를 수상하는 영예를 이어갔다.

/강준혁 기자 junhyuk@

중기부, 사내벤처 육성기업 15곳 추가 모집

오늘부터 내달 21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사내벤처를 육성할 운영기업 15개사를 모집한다.

중기부는 사내벤처를 통한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기업을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교보생명, 바른손 등 운영기업 6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신설한 사업으로 이달까지 운영기업 107개사와 사내벤처팀(분사기업) 499개를 지원했다.

이번 운영기업 공모는 ▲사내벤처 운영 규정 ▲지원부서(인력)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사내벤처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뽑힌 운영기업은 내부 역량을 통해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자체 발굴해 중기부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분사기업)을 평가·선정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액셀러레이터 매칭 등 후속 사업화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